



# Merry Christmas!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크리스 마스에 주인공 되신 아기에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속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2015년도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5번째 학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역 교회를 섬기고, 매주 금요일 다운타운 지역에서의 전도와 유난히 많았던 학과 과제로 많이 바쁜 일정을 보냈던 한해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극변하는 세계의 가치와 정세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때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와 다가오



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자리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다운 타운에서의 전도사역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불우한 환경과 인종적 차별,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 마약과 알콜 중독으로 삶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의 눈빛이 변하여, 이제는 전도팀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나눔이 있는 광야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전도팀(Bus Stop Ministry)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우월한 쾌락’이란, 세상의 저급한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안에서 누릴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보화 안에 담겨진 가치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시는 놀라운 한해 되기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준호, 김은미, 예찬, 예담 선교사 드림.

- 기도제목 1)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속에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 2) 공부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넘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 3)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도 자라나도록
- 4)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 5)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도록

\*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후원 계좌가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후) 계좌번호: 하나은행 353-933052-37737, 예금주 : 기아대책 최준호